

전주대 물류무역학과 재직동문회, 장학금 기탁 학과 발전 위해 500만원 전달

연형섭 기자 / | 입력 : 2020년 06월 30일(화) 19:55



© e-전라매일

전주대는 물류무역학과 재직동문회가 코로나19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박광서 전 물류무역학과 교수, 양정호 물류무역학과 교수(91학번), 한남희 전 총무처장(84학번), 이석현 전 공과대학행정실장(89학번), 김방근 사범대학행정지원실장(86학번), 이용노 산학연구지원실장(89학번), 전재홍 학생지원실장(94학번), 김민재 입학지원실 주임(10학번)이 뜻을 모아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내놓았다.

전주대 이호인 총장은 “졸업생 선배들이 매년 공식·비공식적으로 후배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전달해오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함을 느낀다”며 “졸업생 선배들의 노력이 학과가 더 발전하고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물류무역학과 양정호 교수는 “재직동문회가 기부한 장학금은 매년 12월 5~6명의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재직동문회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이 후배들을 위해 기부한 장학금이 1억원에 달한다.”라며, “후배와 학과를 위한 선배들의 사랑과 헌신을 바탕으로 학과 발전에 더욱더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물류무역학과 재직동문회는 물류무역학과(전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전주대에 재직 중인 교수, 직원의 모임으로 학교와 학과의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쳐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을 기부해왔다.

url : http://www.e-jlmaeil.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191&idx=190383

Copyrights ©e-전라매일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